KOSDAQ | 반도체와반도체장비

제우스 (079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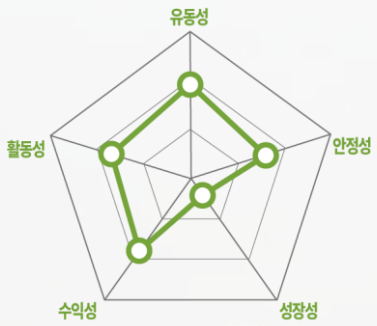
반도체 수율의 해결사

체크포인트

- 제우스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와 산업용 로봇을 공급하는 업체. 주력 제품은 웨이퍼 표면의 오염물과 공정 잔여물을 제거하는 습식 세정장비로,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상글웨이퍼와 배치형 장비를 모두 생산 중. 2025년 반도체 제조 장비 매출 비중은 60.7%를 기록함
- 반도체 미세화와 NAND 고단화, HBM 적층 단수 증가에 따라 세정 공정의 중요성 확대 중. 기존 삼성전자 중심에서 HBM 투자 확대를 계기로 SK하이닉스까지 고객사를 넓혔으며, 최근 미국 IDM에도 세정장비 공급을 시작. 국내 고객사의 발주 재개와 해외 고객사 확대에 따라 2027년부터 장비 출하량 증가 전망
- 제우스는 기존 세정장비 외 TBDB, PLP, PEP 등 첨단 패키징 장비를 개발 중. 특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포토닉 방식 TBDB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 자체 개발한 포토닉 TBDB는 박형 웨이퍼에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을 줄여 HBM 고단화 과정에서 활용도가 높을 전망. 2026년은 연구개발비와 J.E.T. 적자로 부진이 예상되나, 신규 장비 매출이 시작되는 2027년부터 실적 회복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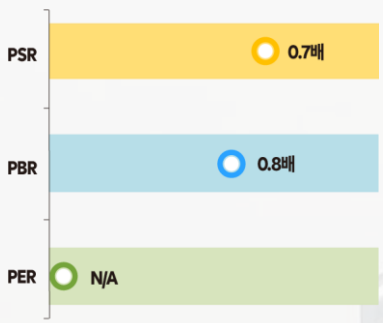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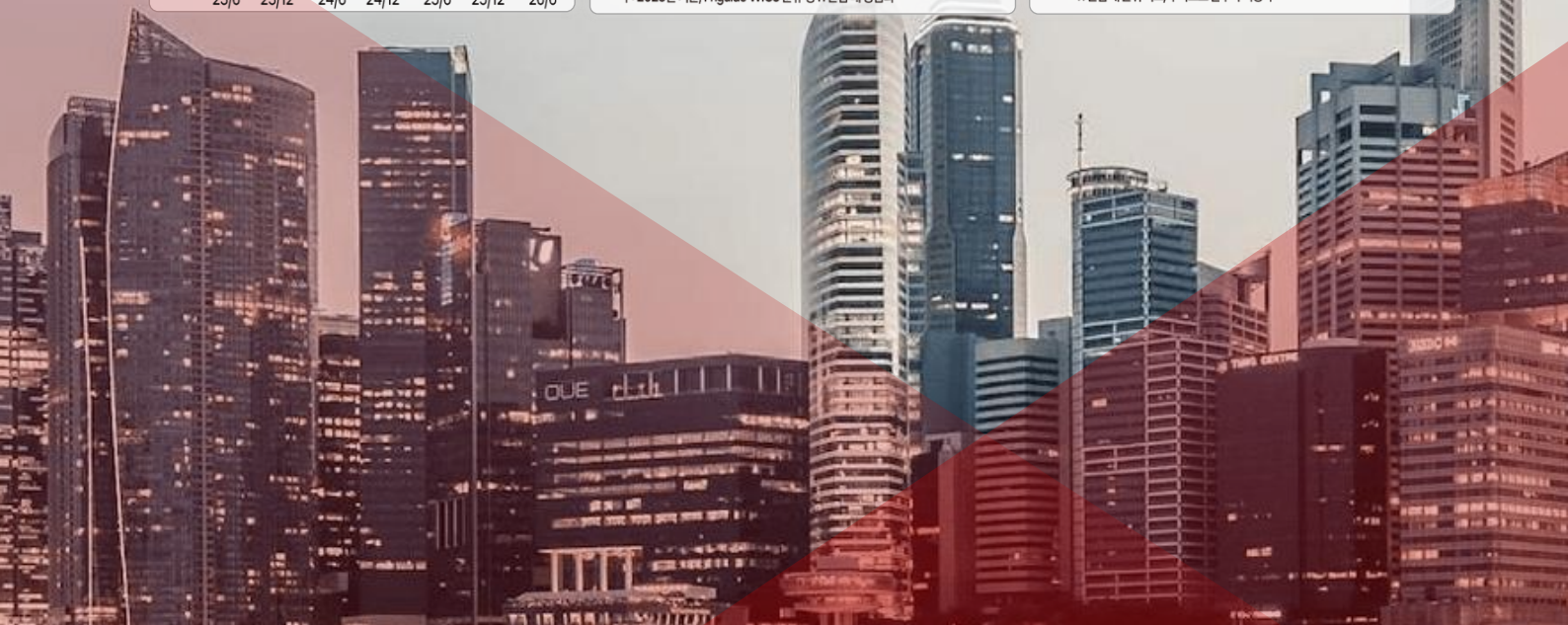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IT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5년 기준, PBR은 1Q26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제우스 (079370)

KOSDAQ

반도체와반도체장비

Analyst 오정하 jh.oh@kirs.or.kr
RA 권지승 rnjswltmd32@kirs.or.kr

미세화로 세정장비 수요 확대

제우스는 싱글웨이퍼와 배치형 습식 세정장비를 모두 공급하는 국내 유일한 업체. 반도체 미세화와 NAND 고단화가 진행될수록 미세 파티클이 수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며 세정 공정의 중요성 확대. 전방 고객사의 생산능력 증가뿐만 아니라 단위 생산능력당 장비 투입 대수도 늘어나 세정장비 출하량 증가 전망

국내 중심에서 해외 고객사로 확대

제우스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성장한 이후 HBM 투자 확대를 계기로 SK하이닉스까지 고객 기반 확대. 최근에는 미국 IDM에 세정장비를 출하하며 해외시장 진입 중. 2026년 국내 고객사의 지연된 발주가 재개되고, 2027년부터 미국 고객사향 공급이 본격적으로 더해지며 외형 성장과 장비당 수익성 개선 전망

세계 유일 포토닉 TBDB로 사업 확장

제우스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포토닉 방식 TBDB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 메커니컬 방식보다 박형 웨이퍼의 크랙과 파손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HBM 고단화와 PLP 전환 과정에서 활용도 확대 전망. 신규 장비 연구개발비의 선행 투입과 J.E.T.의 부진으로 2026년 적자 지속은 불가피하나, 2027년 신규장비 매출 인식과 해외 고객사 확대에 힘입어 제품 믹스 및 수익성 개선 전망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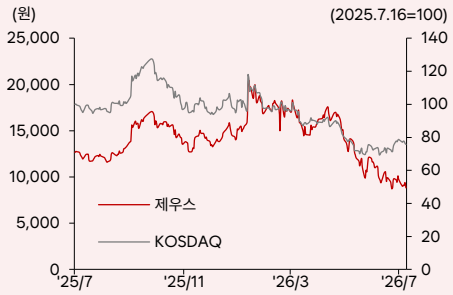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5,090	4,029	4,908	3,833	3,218
YoY(%)	27.0	-20.9	21.8	-21.9	-16.1
영업이익(억원)	463	71	492	-45	-277
OP 마진(%)	9.1	1.8	10.0	-1.2	-8.6
지배주주순이익(억원)	350	99	419	-58	-152
EPS(원)	1,125	320	1,350	-188	-490
YoY(%)	119.2	-71.5	321.8	적전	적지
PER(배)	7.6	48.8	8.8	N/A	N/A
PSR(배)	0.5	1.2	0.8	1.2	0.9
EV/EBITDA(배)	5.2	27.3	6.4	123.9	N/A
PBR(배)	1.0	1.6	1.1	1.4	0.9
ROE(%)	13.4	3.4	13.0	-1.7	-4.7
배당수익률(%)	1.4	0.2	0.8	0.3	0.6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7/24)		8,830원
52주 최고가		20,450원
52주 최저가		8,730원
KOSDAQ (7/24)		748.22p
자본금		155억원
시가총액		2,739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31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42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54억원
외국인지분율		7.09%
주요주주	이종우 외 5 인	39.32%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0.2	-43.1	-27.0
상대주가	9.2	-24.4	-21.0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1 기업 개요 및 연혁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중심에서 로봇으로 확대

제우스는 1970년 설립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및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이다. 1981년 반도체 장비, 부품 사업에 진출했으며, 1992년 디스플레이 인라인 시스템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제우스는 2009년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의 사업 기반을 인수해 J.E.T.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제우스는 200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으며, J.E.T.는 2021년 도쿄증권거래소 TOKYO PRO Market에 상장한 데 이어 2023년 Standard Market으로 이전 상장했다.

반도체 장비 부문에서는 배치형(Batch) 및 싱글형(Single) 웨이퍼 습식 세정장비를 중심으로 제품군을 확대해 왔다. 2010년대에는 고온 황산 세정(HTS), 3HF, Poly, FPM 등 전공정용 세정장비와 패키징용 플럭스 세정장비로 공정 라인업을 넓혔으며, 2020년부터는 첨단 패키징(Advanced Packaging)용 세정, 식각 등의 장비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이와 함께 급속열처리장비(RTP) 사업에 진출하고, 패널레벨패키징(PLP), 본딩-디본딩(TB-DB), 가압식각공정(PEP) 등 차세대 패키징 공정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장비 부문에서는 2000년 HPCP 기술을 개발 및 국산화하고 인라인 시스템의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후 오븐과 검사장비로 제품군을 확대했으며, 축적된 온도 제어 및 오염 제거 기술을 바탕으로 최대 11세대급 패널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 라인업을 구축했다. 또한 2018년 일본 기업의 산업용 로봇 사업 부문을 인수해 로봇 액추에이터와 에듀케이터 모듈 기술을 확보했고, 2019년 6축 수직다관절 로봇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수직다관절, 스카라, 델타 로봇으로 구성된 자체 로봇 라인업을 완성했으며, 2023년부터는 개별 로봇 판매를 넘어 자동화 장비와 생산라인을 일괄 공급하는 시스템 통합 및 턴키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 연혁

1981
반도체 장비/부품 사업 진출

2000
일본 SES社 반도체 장비 부문 인수 후 (주)JET설립 (2009)

Wet Cleaning Process

300mm Batch / Single System 제조 및 납품 시작

2010
공정 Line-up 확대

Fab 공정 : HTS(High Temperature Sulfuric), 3HF, Poly, LAL500, FPM, O3HF 등
PKG : Flux Clean 등

JET 일본 증시 상장 (2019)

Tokyo Pro Market

2020
Advanced Packaging(AVP) 공정 진출
Cleaner, Etcher, Stripper

RTP 공정 진출
High performance heater manufacturing

JET 일본 증시 이전 상장 (2023)
Tokyo Standard Market

Panel Level Pakaging(PLP)용 개발 중

TB-DB 개발 중
Mechanical, Laser, Photonic Debonding

PEP 개발 중
Pressurized Etch Process 新공정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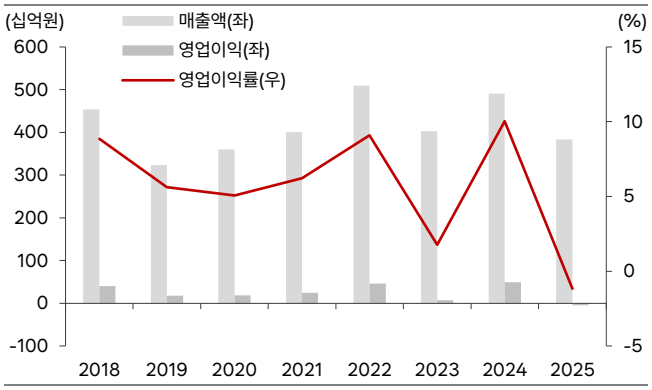
300mm Batch Wafer Wet Processing → 300mm Single Wafer Wet Processing 국산화 (8CHB) → 300mm Single Wafer Wet Processing (12CHB) → Advanced PKG용 Cleaning Wet Processing → Rapid Thermal Processing System

자료: 제우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제우스는 장비 기술의 내재화와 함께 국내외 자회사 및 사업 거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2009년 J.E.T. 산하에 대만 법인 등을 편입했고, 2017년 중국 엔지니어링 서비스 법인 ZEUS CHINA, 2018년 장비 중개법인 GLOBAL ZEUS를 설립했다. 2021년에는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앤피에스를 자회사로 편입했으며, 2022년 감광재료 및 화학제품 업체 헤라켐테크놀러지에 출자했다. 이후 비핵심 법인인 솔브리지 지분을 2024년 매각하고, 2025년 베트남에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보수 법인 GLOBAL ZEUS VINA를 설립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우스는 반도체 전공정 세정장비를 기반으로 첨단 패키징,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솔루션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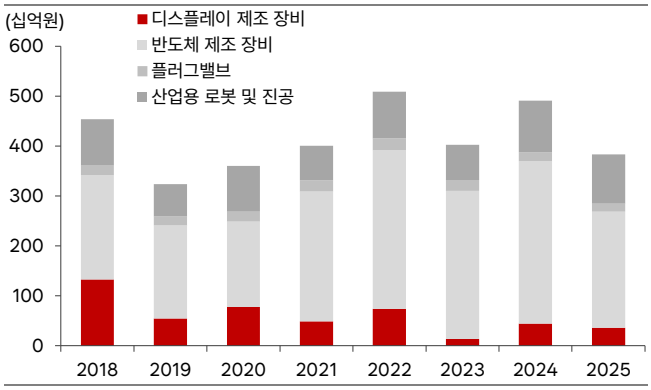
제우스는 2025년 연간 기준 매출액 3,833억원(YoY -21.9%), 영업이익 -45억원(YoY 적자전환), 영업이익률 -1.2%(YoY -11.2%pt)를 기록했다. 주요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361억원(YoY -18.2%), 반도체 제조 장비 2,326억원(YoY -28.5%), 플러그밸브 161억원(YoY -12.4%), 산업용 로봇 및 진공 984억원(YoY -4.1%)으로 구성된다.

매출액,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제우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자료: 제우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 주주구성 및 자회사

안정적인 경영권과 국내외 자회사 네트워크

2026년 1분기 말 기준 최대주주는 이종우 대표이사로, 동사 지분 22.1%를 보유하고 있다. 이동악 전 회장 등 오너 일가를 비롯해 재단법인 산기, 제우스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측 지분율은 39.4%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의 약 40%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는 1Q26 기준 14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는 플러그밸브를 생산하는 쓰리젯과 쓰리젯메탈, 전자재료용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에이피씨티, 반도체 장비업체 앤피에스, 감광재료 및 전자소재를 개발하는 헤라켐테크놀러지 등이 있다. 해외에서는 중국·미국·베트남의 판매 및 서비스 법인을 통해 현지 고객 대응과 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베트남 법인인 GLOBAL ZEUS VINA를 신규 설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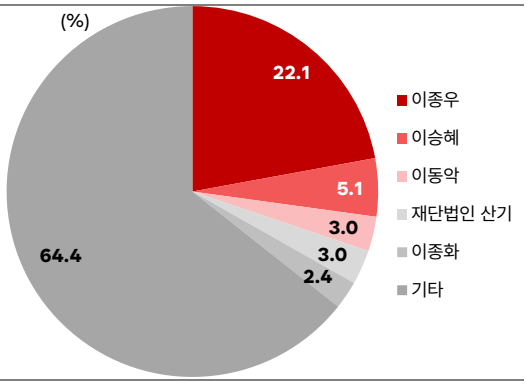
핵심 자회사는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 J.E.T.이다. 제우스는 2009년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의 사업 기반을 인수해 J.E.T.을 자회사로 편입했으며, 2025년 말 기준 지분 66.3%를 보유하고 있다. J.E.T.은 2021년 일본시장에 상장했다. 일본 오카야마에 본사와 생산거점을 두고, 대만·중국·한국·미국에 판매 및 서비스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J.E.T.의 주력 제품은 여러 장의 웨이퍼를 동시에 처리하는 배치형 습식 세정장비다. 한 번에 20~50장의 웨이퍼를 처리해 생산성이 높으며, 웨이퍼를 한 장씩 처리하는 제우스의 싱글형 장비와 공정 방식이 구분된다. 배치형 장비는 미세공정 전환에 따라 적용 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높은 처리량이 요구되는 메모리 반도체와 기존 생산라인 및 레거시 공정에서는 장비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J.E.T.은 삼성전자 등 국내 메모리 고객사와 중국 파운드리 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제우스는 J.E.T. 인수를 통해 일본의 배치형 세정장비 기술과 고객 기반을 확보했으며, 싱글형과 배치형을 아우르는 습식 세정장비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또한 J.E.T. 산하의 J.E.T. Semi-Con. TAIWAN, ORIBRIGHT SHANGHAI, 제이이티코리아 및 J.E.T. AMERICA를 활용해 한국·중국·대만·미국 고객사에 대한 영업과 기술지원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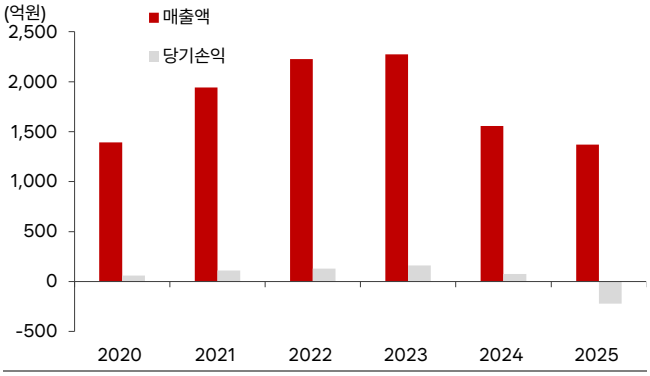
2025년 J.E.T.은 매출액 1,369억원, 당기순손실 222억원을 기록했으며, 연결 종속회사 가운데 자산과 매출 규모가 가장 크다. 이에 따라 J.E.T.의 실적은 제우스 연결 실적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향후에는 기존 한국·중국 고객사를 중심으로 한 배치형 장비 공급과 함께 일본 차량용·전력반도체 및 미국 레거시 반도체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우스의 지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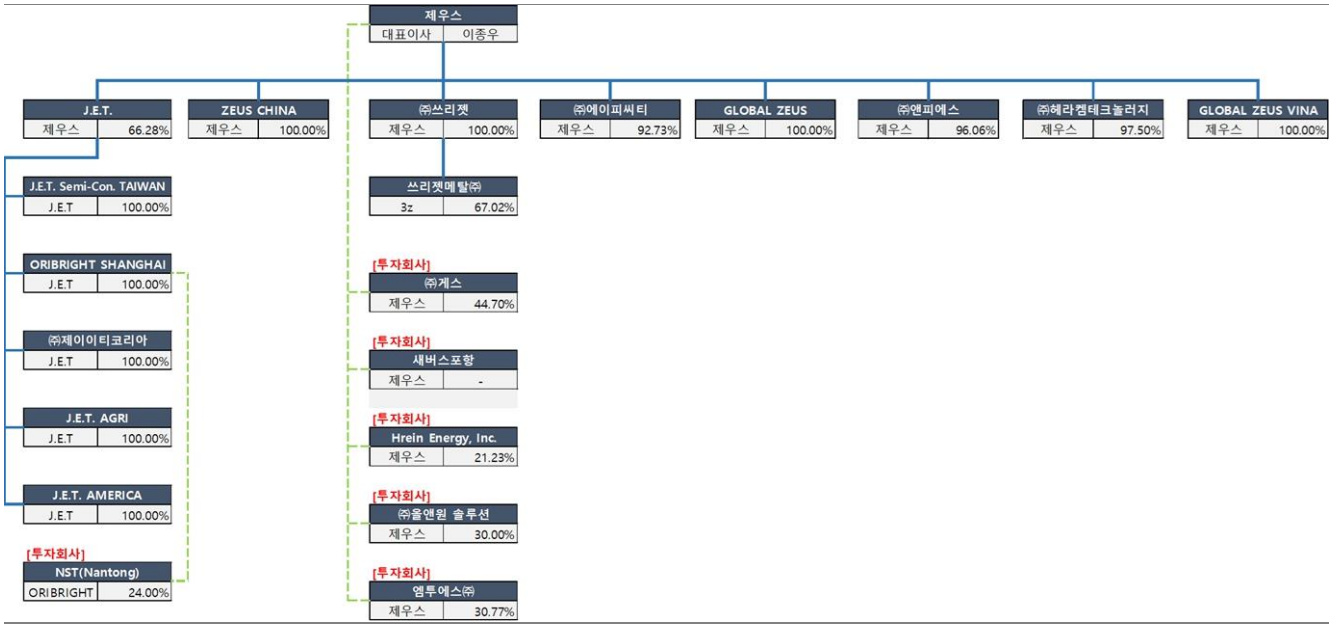
자료: 제우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J.E.T 실적 추이



자료: 제우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제우스 지배구조도



자료: 다트전자공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 사업부별 설명 및 주요 보유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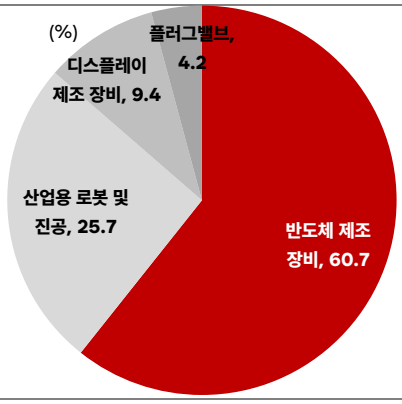
전공정부터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세정장비

제우스의 2025년 사업부별 매출 비중은 반도체 제조 장비 60.7%, 산업용 로봇 25.7%,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9.4%이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제조 장비 부문에서는 화학약액과 초순수 등을 활용해 웨이퍼 표면의 파티클, 금속 오염물 및 공정 잔여물을 제거하는 습식 세정·식각 장비를 생산한다. 세정 공정은 특정 공정에 한정되지 않고 식각, 증착 및 CMP 등 주요 공정 전후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며, 회로 미세화와 첨단 패키징 확대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우스는 웨이퍼를 한 장씩 처리하는 싱글웨이퍼 장비와 여러 장을 동시에 처리하는 배치형 장비를 모두 제조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2022년에 배치형 세정장비를 국산화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넓혔다. 싱글웨이퍼 방식은 웨이퍼별로 약액 농도와 처리시간 등 공정 조건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미세공정과 첨단 패키징에 적합하다. 반면 배치 방식은 여러 장의 웨이퍼를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제우스는 두 가지 방식의 장비를 모두 보유해 고객사의 공정 목적과 생산량에 맞는 습식공정 솔루션을 일괄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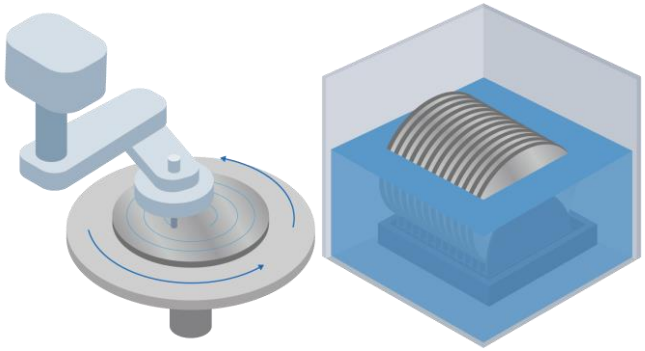
2026년 주목할 장비는 HBM과 첨단 패키징 공정에 적용되는 ATOM과 SATURN이다. ATOM은 칩 접합 후 남은 플럭스와 다이싱·디본딩 잔여물을 제거하며, SATURN은 TSV 식각 이후 남은 구리 등 금속 잔여물을 세정한다. 이 밖에도 ION12, APOLLON, VENUS, BW Series 등 다양한 세정장비와 임시 본딩 장비 PIO-3B를 보유하고 있다. 제우스는 싱글·배치 세정에서 본딩·디본딩까지 제품군을 확대하며 첨단 패키징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제우스 2025년 사업부별 매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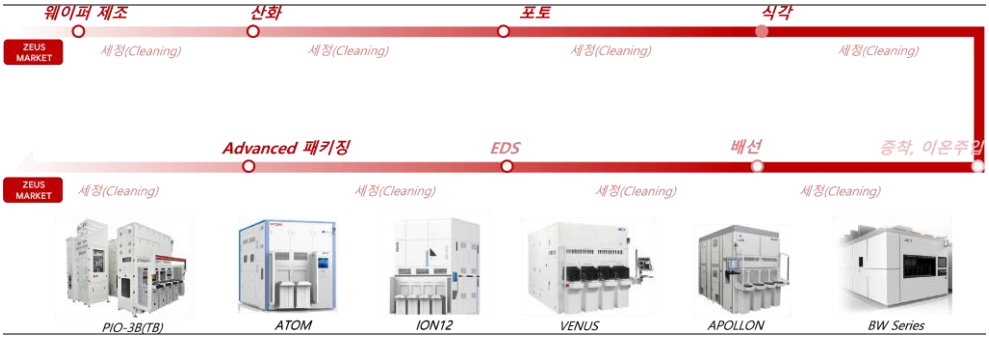
자료: 제우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싱글 웨이퍼 장비와 배치 웨이퍼 장비



자료: J.E.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반도체 공정 속 세정



자료: 제우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일본 Nidec 기반 중소형 로봇 라인업

제우스의 로봇 사업은 일본 Nidec Sankyo(현 Nidec Instruments)의 디스플레이 반송용 로봇 유통·서비스 사업과 자체 브랜드인 중소형 산업용 로봇 'ZERO' 사업으로 구성된다. MPAC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유리기판 반송로봇 시장의 주요 업체는 Nidec Instruments와 현대로보틱스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즈호은행 분석에서도 2023년 매출액 기준 일본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약 58%로 나타나, Nidec 중심 시장 집중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제우스는 1996년부터 국내에서 Nidec의 디스플레이용 로봇 판매와 설치·유지보수를 담당하며 관련 역량을 축적했다. 국내 고객사가 Nidec 로봇을 도입하려면 사실상 제우스를 거쳐야 하는 독점적인 유통·서비스 구조다. 이후 2018년 일본 로봇업체의 산업용 로봇 사업을 인수하고, 2019년 자체 개발한 6축 다관절 로봇 ZERO를 상용화했다. 현재는 6축 다관절·SCARA·델타·직교로봇까지 중소형 산업용 로봇의 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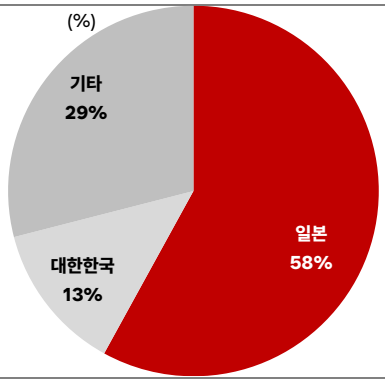
제우스가 로봇 제조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세정장비 사업을 통해 축적한 정밀 장비 제작 기술이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은 미세한 파티클도 수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로봇 구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진동 최소화가 중요하다. 제우스는 청정 환경에서 작동하는 세정장비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저분진 설계와 정밀 제어 기술을 로봇에 적용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 적합한 로봇을 공급하고 있다.

제우스는 감속기를 제외한 모터와 컨트롤러, 모션 알고리즘 등 주요 부품과 제어 기술을 내재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공정에 맞춰 로봇의 크기와 동작 범위, 제어 방식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으며, 경쟁 제품보다 가격을 30~50% 낮춘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개별 로봇 판매를 넘어 로봇과 주변 장비를 결합하고 자동화 라인 전체를 설계·구축하는 턴키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향후 자동화 수요 증가와 함께 로봇 판매량 확대뿐만 아니라 시스템 통합과 유지보수 매출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제우스 로봇 라인업 – 중소형 산업용 로봇

자료: 제우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3년 디스플레이 유리기판 반송 로봇 국가별 시장점유율



자료: 미즈호은행,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6축 다관절 로봇 사양 비교

제조사·모델	Payload	도달거리	반복정밀도	본체 중량
제우스 ZRA	5~7kg	725·925mm	±0.02mm	약 17kg
두산로보틱스 A0509	5kg	900mm	±0.03mm	21kg
레인보우로보틱스 RB5-850	5kg	927.7mm	±0.05mm	22kg
뉴로메카 NURI5S	5kg	1,230mm	±0.03mm	약 17kg
한화로보틱스 HCR-5A	5kg	915mm	±0.05mm	21kg
Universal Robots UR5e	5kg	850mm	±0.03mm	20.7kg
FANUC LR Mate 200iD/7L	7kg	911mm	±0.01mm	약 27kg
Yaskawa GP7	7kg	927mm	±0.03mm	약 34kg

자료: 각 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업황 회복은 확인, 장비사 실적은 후행

반도체 회복에 후행하는 장비 실적

반도체 장비 산업은 전방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다만 메모리 가격 상승과 반도체 기업의 실적 회복이 곧바로 장비사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업황 회복 초기에는 기존 생산라인의 가동률을 높이고 재고를 정상화한 뒤, 수요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신규 장비를 발주하기 때문이다.

장비 발주 이후에도 설계와 제작, 납품, 설치 및 고객사 검수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장비사의 실적은 반도체 업황보다 통상 수개월에서 1년가량 후행한다. 특히 제우스와 같이 고객사의 공정 조건에 맞춰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는 설계 변경과 제작, 셋업 및 성능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투자 회복과 매출 인식 사이의 시차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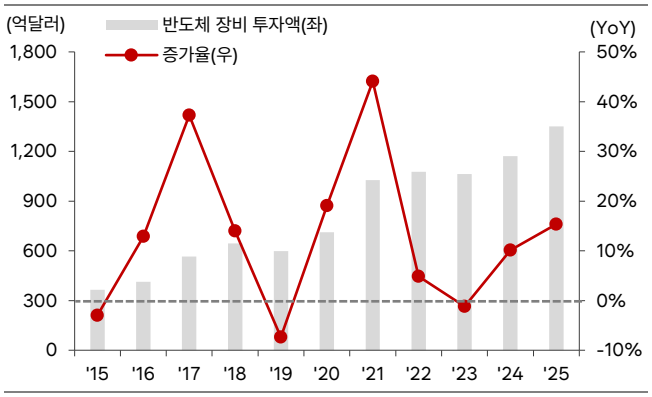
2025년 글로벌 반도체 장비 매출은 AI 서버와 선단공정 투자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5% 증가한 1,351억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투자가 HBM과 선단 로직, 첨단 패키징·테스트 공정에 집중되며 장비 업체별 실적 회복 강도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장비시장 전체가 성장했음에도 고객사와 적용 공정, 발주 일정에 따라 수혜가 선별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대만이 AI·HPC용 선단공정 증설에 힘입어 90% 증가했고, 한국도 HBM과 첨단 DRAM 투자를 중심으로 26% 늘었다. 반면 중국은 높은 투자 규모를 유지했지만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글로벌 장비시장은 성장했지만, 수혜는 AI 관련 공정과 고객사 투자 일정에 따라 선별적으로 나타났다.

2025년 HBM 투자 확대, 신규 팹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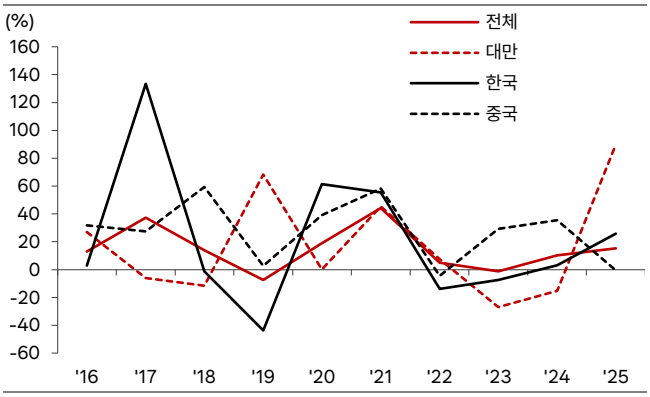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평택 P4와 미국 테일러 공장 투자 일정 조정이 일부 장비사의 매출 회복을 제약했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의 주요 고객 확보가 지연되면서 ASML의 EUV 장비 인도를 연기했으며, 평택 신규 파운드리 라인 투자도 늦춰졌다. 따라서 2025년은 국내 반도체 투자가 전면적으로 위축된 시기라기보다, HBM 중심의 투자는 확대된 반면 삼성전자 신규 라인과 범용 공정 관련 투자가 지연되며 업체별 실적이 차별화된 시기이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투자액 추이



자료: SEMI,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국가별 장비투자액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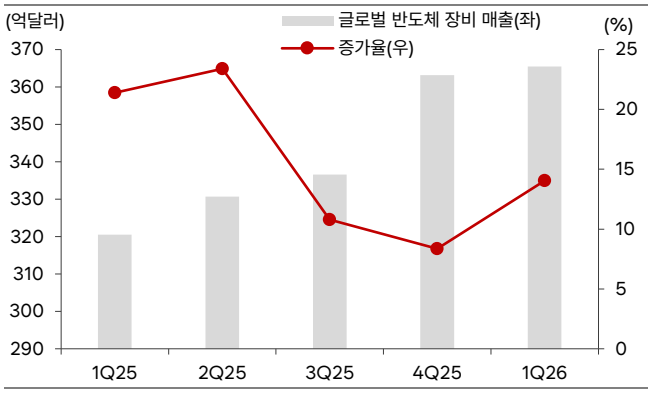
자료: SEMI,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장비 투자 회복세 확인, 2027년 외형 확대 예상

2026년에는 반도체 장비 투자 회복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2026년 1분기 글로벌 반도체 장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366억달러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SEMI는 2026년 연간 글로벌 반도체 장비 매출이 전년 대비 23.2% 증가한 1,65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웨이퍼 팹 장비(WFE) 매출은 23.1%, DRAM 장비는 39.0%, NAND 장비는 3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투자 수요가 HBM뿐만 아니라 선단 DRAM 공정 전환과 NAND 고단화, 첨단 패키징 및 테스트 공정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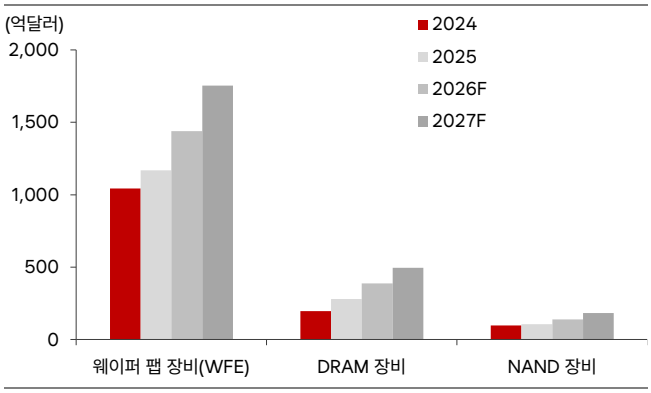
다만 2026년 장비 투자 확대분이 모두 당해 장비사의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은 고객사의 발주와 장비 제작, 납품 및 설치가 본격화되는 시기이며, 연중 수주한 장비 중 일부는 고객사 검수가 완료되는 2027년에 매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장비사의 수주와 수주잔고는 2026년부터 증가하지만, 매출과 이익 개선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매출 – 분기별



자료: SEMI,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WFE · DRAM · NAND 장비 매출 추이 및 전망



자료: SEMI,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 미세화·고단화로 중요성이 커지는 세정 공정

수율 개선의 핵심 공정으로 부상

세정(Clean) 공정은 화학물질, 가스, 초순수 및 물리적 처리 등을 활용해 웨이퍼 표면에 남아 있는 파티클과 유기물, 금속 오염물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이다. 약 400~500개의 반도체 메인 공정 가운데 15%를 차지하는 공정으로, 특정 공정에 한정되지 않고 식각, 증착, 이온주입 등 주요 공정 전후에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회로 선폭이 미세화될수록 과거에는 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미세 파티클도 결함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정 공정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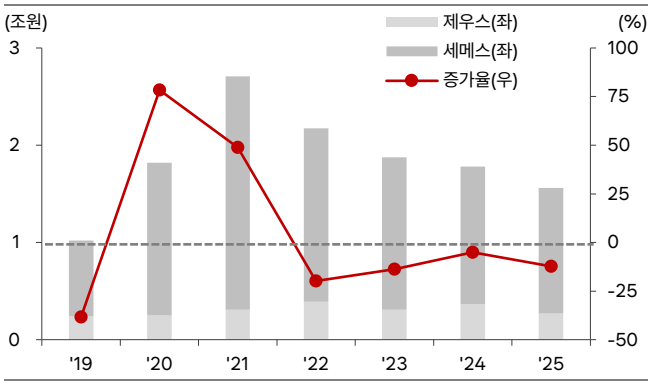
특히 DRAM의 미세화와 NAND Flash의 고단화가 심화되면서 공정 난도가 높아지고, 수율 확보가 반도체 제조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고객사의 수율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세정장비 업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세정장비는 세정방식과 제거 대상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세정방식은 케미컬과 초순수 등을 활용하는 습식과 가스를 활용하는 건식으로 나뉜다. 처리량과 범용성이 높은 습식 세정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반도체 미세화와 3차원 구조 확대로 특정 물질을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는 건식 세정의 적용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국내 주요 세정장비 공급사로는

동사와 비상장사인 세메스가 있으며, 해외에서는 일본의 도쿄일렉트론(Tokyo Electron)과 스크린홀딩스(SCREEN Holdings, 구 DNS) 등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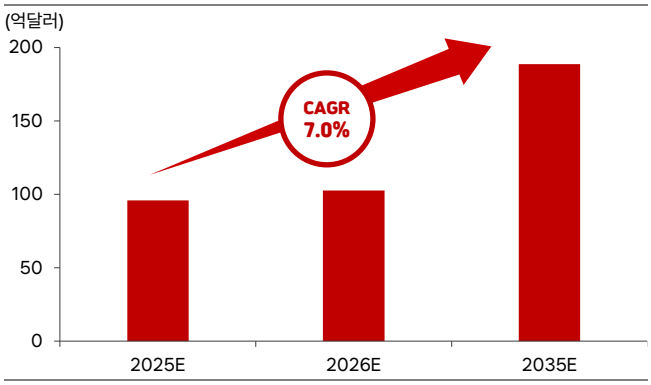
세정 공정의 밸류체인은 장비뿐만 아니라 케미칼과 특수가스 등 소재 분야까지 폭넓게 형성돼 있다. 세정장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공정 목적에 따라 과산화수소 등의 세정용 케미칼과 각종 특수가스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한솔케미칼이 세정용 과산화수소를 공급하고 있으며, 원익머트리얼즈와 티이엠씨 등이 공급하는 특수가스도 세정 공정에 활용된다. 이처럼 세정은 증착이나 노광 공정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수율과 직결되는 핵심 공정으로, 장비와 소재 분야에 걸쳐 다양한 공급업체가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다.

국내 세정장비 시장 규모 추이



자료: 제우스, 세메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제우스와 세메스 매출액의 합

글로벌 웨이퍼 세정장비 시장 규모 전망



자료: Future Market Insight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세정장비 구분

구분	세정 방식 및 특징	국내 주요 업체	해외 주요 업체
배치형 습식 세정	여러 장의 웨이퍼를 케미컬 또는 초순수가 담긴 세정조에 넣어 동시에 처리	제우스·J.E.T.	SCREEN, Tokyo Electron
싱글형 습식 세정	웨이퍼를 한 장씩 회전시키며 케미컬과 초순수를 분사해 세정	제우스, 세메스, 케이씨텍	SCREEN, Tokyo Electron, Lam Research
건식 세정	플라즈마와 반응성 가스를 활용해 산화막과 공정 잔여물을 제거	피에스케이, 유진테크	Lam Research, Tokyo Electron
PR 제거·애싱	산소 플라즈마와 반응성 가스를 활용해 포토레지스트와 폴리머를 제거	피에스케이, 제우스 일부 장비	Lam Research, Applied Materials
특수 세정	케미컬, 초순수, 초임계 유체 등을 활용해 웨이퍼 후면·가장자리 및 패키징 잔여물을 제거	세메스, 케이씨텍, 피에스케이, 제우스	SCREEN, Tokyo Electron, Lam Research

자료: 산업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반도체 미세화와 고객사 확대로 세정장비 Q 증가

장비 집약도 상승과 고객사 확장

반도체 미세화와 공정 단계 증가에 따라 단위 생산능력당 세정장비 투입 대수는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생산능력 10K당 1대의 세정장비가 필요했으나, 세정 공정이 추가로 적용되면 장비 수요는 10K당 최대 3대까지 증가할 수 있다. 경쟁 장비사가 함께 진입한 공정에서도 수요를 양분한다고 가정하면 제우스의 실질적인 장비 수요는 생산능력 20K당 약 1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방 고객사의 생산능력 확대뿐만 아니라 공정 미세화에 따른 장비 집약도 상승이 제우스의 출하량 증가를 견인할 전망이다.

고객사 확대도 장비 수요 증가를 뒷받침한다. 제우스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며, HBM 투자 확대를 계기로 SK하이닉스까지 고객 기반을 넓혔다. 최근에는 미국 IDM으로 고객군을 확장하고 있다. 2025년 12월과 2026년 3월 미국 고객사에 세정장비를 각각 1대씩 출하했으며, 2026년 거래를 시작한 고객사와는 2027년 10대 이상의 장비 공급을 논의 중이다.

2025년 지연됐던 국내 IDM의 투자가 2026년 발주로 이어지고, 2027년부터는 미국 IDM향 수주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우스의 세정장비 사업은 전방 투자 회복에 따른 생산능력 증가, 미세화에 따른 단위 생산능력당 장비 투입량 상승, 해외 고객사 확대가 맞물리며 출하량 성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 신규 장비 라인업 확대

전세계 유일무이 포토닉 TBDB

제우스는 기존 세정장비를 넘어 TBDB, PLP, PEP 등 다수의 신규 장비를 개발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익화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장비는 TBDB(Temporary Bonding & Debonding)다. TBDB는 얇아진 웨이퍼를 캐리어 웨이퍼에 임시로 접합해 안정적으로 공정을 진행한 뒤, 공정 완료 후 다시 분리하는 장비다.

HBM은 여러 개의 DRAM 다이를 수직으로 적층하는 구조로, 적층 단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패키지 두께를 낮추기 위해 개별 웨이퍼와 다이를 더욱 얇게 가공해야 한다. 그러나 웨이퍼가 얇아질수록 강성이 낮아져 백그라인딩, TSV 후면 공정, 세정 및 이송 과정에서 휨과 크랙, 파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박형 웨이퍼를 캐리어 웨이퍼에 고정해 평탄도와 기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TBDB 공정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HBM 고단화와 웨이퍼 박형화가 진행될수록 TBDB 장비의 적용 공정과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동사는 메커니컬 방식과 포토닉 방식의 TBDB 장비 개발을 모두 완료했다. 특히 자체 개발한 포토닉 디본딩 기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토닉 방식은 빛을 조사해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활용해 디바이스 웨이퍼와 캐리어 웨이퍼를 분리하는 기술이다. 물리적인 힘으로 웨이퍼를 분리하는 메커니컬 방식보다 웨이퍼에 가해지는 응력이 작아, 박형 웨이퍼의 크랙과 파손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웨이퍼 두께가 지속적으로 얇아지고 적층 단수가 증가하는 HBM 공정에서 포토닉 방식의 장점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포토닉 디본딩은 향후 패키징 기판이 웨이퍼에서 대면적 패널로 전환되는 PLP 공정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대면적 패널은 레이저를 전체 면적에 균일하게 조사하는 데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넓은 면적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포토닉 방식이 대면적 디본딩의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 기존 세정장비에 TBDB와 PLP 관련 장비가 추가되면서 제우스는 HBM과 첨단 패키징 공정 전반으로 장비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첨단 패키징 장비 업체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디본딩 공정 비교

구분	작동 방식	스트레스	WPH (Wafer Per Hour)	수율/신뢰성
매커니컬 디본딩	기계적인 힘으로 물리적으로 분리	낮음	10~20	물리적 손상 위험, 정밀도에 한계가 있음
레이저 디본딩	레이저가 열을 가해 릴리스층을 분해	최저	50	국부적인 가열로 인한 손상 가능성
포토닉 디본딩	광대역 빛 펄스가 LAL 에서 접착제를 기화	최저	100	높은 수율(>99.5%)

자료: 산업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 고부가 장비와 해외 확장의 시너지

1) 후공정 확대
2) 해외고객 유치
3) 턴키 수주로 수익성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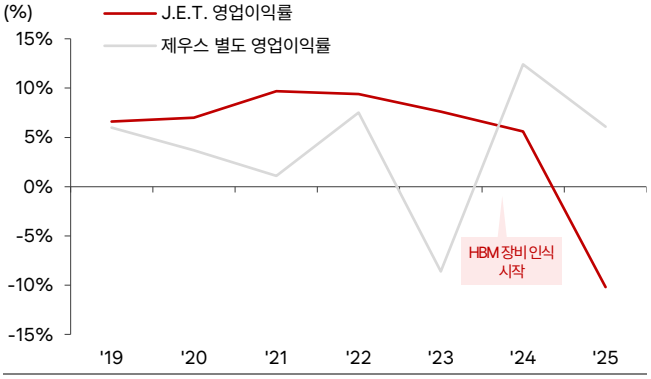
2027년부터 매출 인식이 예상되는 TBDB는 제우스의 제품 믹스와 수익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다. 첨단 패키징을 포함한 후공정 장비는 기존 전공정 세정장비보다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자회사 J.E.T.의 장비 영업이익률이 약 9%, 제우스의 전공정 장비 수익성이 약 7%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TBDB를 중심으로 후공정 장비 비중이 확대될수록 전사 마진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해외 고객사 확대 역시 수익성 개선의 중요한 요인이다. 해외 고객사향 장비는 국내 고객사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 동일한 장비를 판매하더라도 매출액과 장비당 이익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향후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미국 IDM 등 해외 고객사향 공급이 본격화될 경우 외형 성장과 평균판매단가 상승, 제품 믹스 개선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제우스는 2024년 HBM 관련 매출 비중이 15% 미만이었던 상황에서도 두 자릿수의 전사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만큼, 고수익 후공정 장비와 해외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마진 개선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현재 미국 IDM향 TBDB 테스트 장비는 2026년 말 출하가 예정돼 있으며, 고객사와 세부 공정 조건을 최적화하고 있다. 성능 검증이 완료될 경우 2027년부터 양산 장비 매출이 인식되며 후공정 및 해외 고객사향 매출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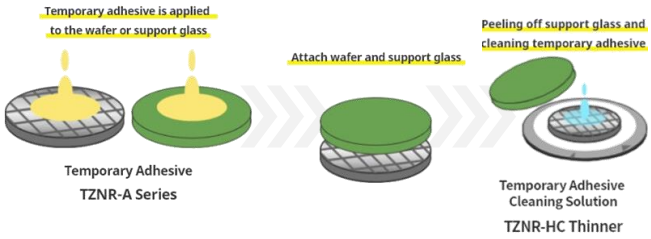
장기적으로는 개별 장비 공급을 넘어 본딩·디본딩·세정공정을 연계한 턴키 공급도 기대된다. 디본딩 공정 이후에 세정 공정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제우스는 기존 세정장비 기술과 신규 TBDB 장비를 함께 보유하고 있어 패키징 공정 전반에 대한 통합 대응이 가능하다. 턴키 공급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팹 단위당 매출액 규모도 늘어나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HBM 관련 매출이 인식되며 마진 상승



자료: 제우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웨이퍼 박형화에 따른 TBDB 공정의 필요성



자료: Tokyo Ohka Kogyo Produc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1 1Q26 실적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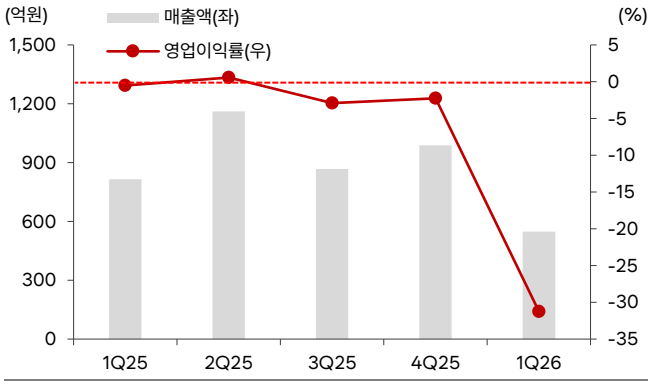
수주 회복 속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

제우스는 2026년 1분기 매출액 549억원(YoY -32.7%, QoQ -44.4%), 영업적자 171억원(적자 확대)을 기록했다. 주력 사업의 매출 인식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면서 매출액은 전년동기와 전분기 대비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사업부별로는 반도체 제조장비 매출이 296억원(YoY -33.4%, 이하 YoY), 디스플레이 제조장비가 34억원(-64.9%), 산업용 로봇 및 진공 부문이 180억원(-25.0%)으로 감소했다. 플러그밸브 매출은 39억원(+12.2%)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매출의 54%를 차지하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진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다.

영업적자 확대는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과 연구개발비 증가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매출총이익은 전년동기 227억원에서 120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판매비와관리비는 231억원에서 291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TBDB, PEP 등 신규 반도체 장비 개발이 이어지면서 연구개발비가 73억원에서 118억원으로 61.4% 증가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8.9%에서 21.4%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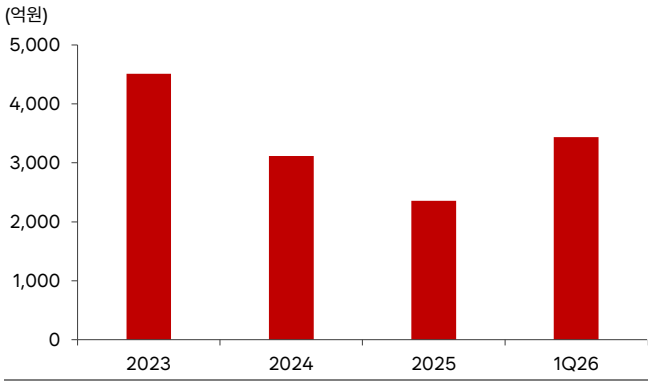
다만 2026년 1분기 말 수주잔고는 3,435억원으로 전년동기 말 대비 15.0%,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수주잔고는 2,45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0% 증가했다. 제우스의 장비는 고객사별 맞춤 제작 방식으로 공급되며, 장비 납품 시점에 따라 매출 인식 시기가 달라져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큰 편이다. 따라서 1분기 실적은 수주 부진보다는 장비 납품의 공백과 높은 연구개발비 부담이 겹친 결과로 볼 수 있다. 향후 국내 고객사의 지연된 발주가 재개되고 기확보 수주잔고가 매출로 전환될 경우, 1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연결)



자료: 제우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수주잔고 추이



자료: 제우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실적 전망

고정비 부담 지속, 회복은 202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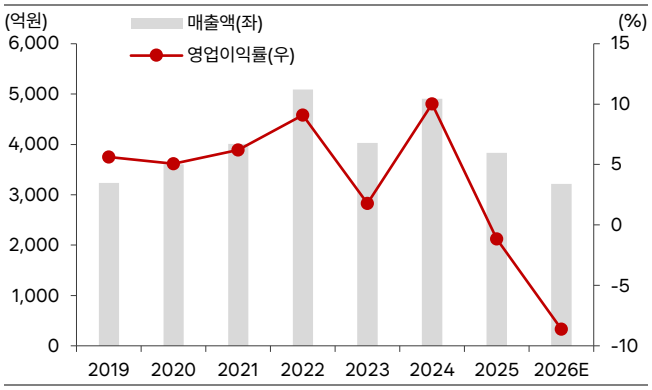
2026년 제우스는 매출액 3,218억원(-16.1% YoY, 이하 YoY), 영업손실 277억원(적자 확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영업이익률은 -8.6%(-7.4%p)로, 외형 축소와 고정비 부담 확대로 수익성이 전년 대비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주요 고객사의 지연된 발주 재개와 기존 수주잔고의 매출 인식에 힘입어 분기 실적은 1분기를 저점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연간 전망치에서 1분기를 제외한 2~4분기 매출액은 총 2,669억원, 영업손실은 106억원으로 추정된다. 분기 평균 영업손실은 약 35억원으로 1분기 171억원 대비 축소되지만, 연간 매출 감소를 만회하기에는 부족할 전망이다.

수익성 부담의 핵심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다. 일본 자회사 J.E.T.의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TBDB·PLP·PEP 등 신규 반도체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2025년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신규 장비의 매출 기여는 고객사 평가와 양산 적용 이후 본격화되는 반면, 관련 인력과 개발비는 선행적으로 투입돼 하반기 매출 회복에도 고정비 부담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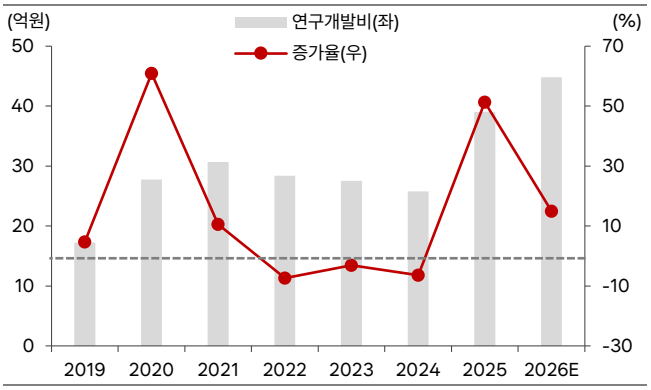
실적의 본격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 고객사의 투자 정상화뿐만 아니라 J.E.T.의 손익 개선, 신규 장비의 고객사 인증 및 매출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2026년 단기 실적보다 해외 고객사 수주 확대와 신규 장비의 상용화 진행 상황이 2027년 이후 성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판단한다.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자료: 제우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구개발비 추이



자료: 제우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원, %)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509	402.9	490.8	383.3	321.8
반도체 제조 장비	318.2	296.6	325.6	232.6	196.5
영업이익	46.3	7.1	49.2	-4.5	-27.7
영업이익률	9.1	1.8	10	-1.2	-8.6
당기순이익	35	9.9	41.9	-5.8	0
당기순이익률	6.9	2.5	8.5	-1.5	0
YoY					
매출액	27	-20.9	21.8	-21.9	-16.1
반도체 제조 장비	22.4	-6.8	9.8	-28.5	-15.5
영업이익	85.8	-84.6	588.2	적전	적지
당기순이익	119.2	-71.6	321	적전	적지

자료: 제우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1 신규 장비가 이끌 재평가

적자 반영한 P/B 저평가 구간

제우스와 사업구조가 완전히 일치하는 상장사는 제한적이다. 이에 국내에서는 습식 세정장비를 공급하는 케이씨텍과 건식 세정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피에스케이를, 해외에서는 글로벌 세정장비 1위 업체인 일본 SCREEN Holdings와 싱글웨이퍼·배치형 세정장비를 모두 보유한 ACM Research를 비교 기업으로 선정했다. 다만 각 기업은 제품 구성과 고객 기반, 사업 규모에서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피어라기보다 세정장비 업체의 밸류에이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 기업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제우스는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영업적자가 예상돼 이익 기준 밸류에이션 적용이 어렵다. 2026년 예상 영업손실은 277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비교 기업들과 달리 P/E 산출이 불가능하다. 신규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일본 자회사 J.E.T.의 적자,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단기 수익성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예상 ROE 역시 -4.7%로 비교 기업의 8.5~25.1%를 크게 하회한다.

반면 자산가치 기준으로는 할인 폭이 크다. 제우스의 2026년 예상 P/B는 0.9배로, 케이씨텍 2.3배, 피에스케이 6.2배, SCREEN Holdings 5.4배, ACM Research 3.6배를 크게 하회한다. 적자 지속과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장부가치 이하에서 거래되며 실적 부진을 상당 부분 반영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향후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핵심은 신규 장비의 상용화와 해외 고객사 확대다. 제우스는 자체 포토닉 디본딩 기술을 적용한 TBDB 장비를 개발해 주요 미국 IDM과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 해외 고객사향 장비 매출이 본격화되고 후공정 장비 비중이 확대될 경우 제품 믹스 개선과 함께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는 이익가치보다 자산가치에 기반해 접근해야 하는 구간이나, 신규 장비 수주가 구체화될수록 피어 대비 과도한 P/B 할인도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Global Peer Valuation

지수 및 기업명	종가 (원, 달러)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P/E		P/B		ROE	
			2025	2026F	2025	2026F	2025	2026F	2025	2026F	2025	2026F
제우스	8,830	274	383	322	-4	-28	N/A	N/A	1.4	0.9	-1.7	-4.7
케이씨텍	75,100	1,487	383	653	60	146	15.4	11.6	1.5	2.3	10.6	22.1
피에스케이	143,900	4,168	457	675	88	179	13.6	27.5	2.0	6.2	15.5	25.1
Screen Holdings	15,850	27,116	5,733	6,626	1,148	1,404	18.4	25.8	3.5	5.4	20.3	22.4
Acm Research Class A	84	8,563	1,282	1,702	156	260	28.2	50.3	1.8	3.6	7.9	8.5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1 일본 J.E.T 실적 부진 지속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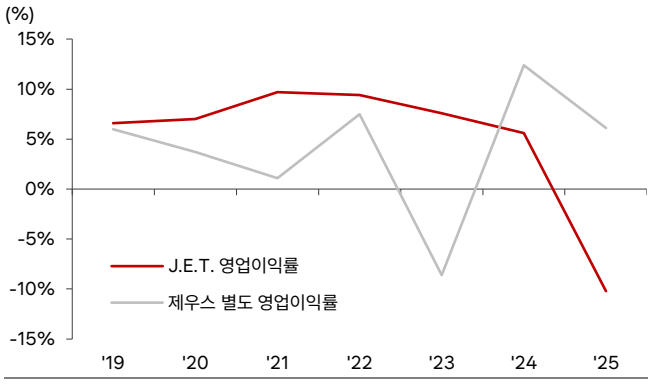
중국 장비 국산화에 따른 J.E.T. 적자 장기화

제우스의 실적 회복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은 일본 자회사 J.E.T.의 부진이다. J.E.T.는 중국 고객사와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각각 약 60%, 40%로, 특정 지역과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중국 반도체 장비시장은 여전히 높은 투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투자 수혜가 현지 장비업체에 집중되면서 J.E.T.와 같은 외산 업체가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축소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중국 내 세정장비 국산화율도 50~60% 수준까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J.E.T.는 중국향 신규 장비 수요 감소로 2026년까지 실적 부진과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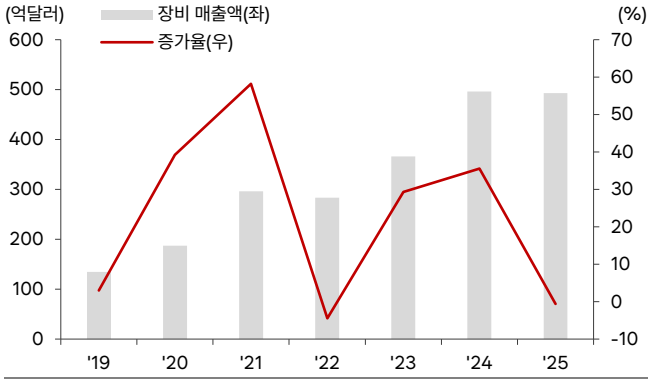
J.E.T.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고객사 대상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지연된 설비투자가 재개될 경우 관련 장비 수요도 일부 회복될 수 있어 2027년부터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 다만 미국 신규 고객사 확보와 삼성전자 투자 정상화 시점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고객 다변화가 지연되거나 중국 내 외산 장비 수요 감소가 장기화될 경우 J.E.T.의 적자가 지속되며 제우스의 연결 수익성 회복을 제한할 수 있다.

J.E.T vs 제우스 영업이익률



자료: 제우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중국 반도체 장비시장 규모



자료: SEMI,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5,090	4,029	4,908	3,833	3,218
증가율(%)	27.0	-20.9	21.8	-21.9	-16.1
매출원가	3,711	3,049	3,494	2,822	2,352
매출원가율(%)	72.9	75.7	71.2	73.6	73.1
매출총이익	1,379	980	1,413	1,011	865
매출이익률(%)	27.1	24.3	28.8	26.4	26.9
판매관리비	916	909	922	1,056	1,142
판관비율(%)	18.0	22.6	18.8	27.6	35.5
EBITDA	588	195	610	38	-188
EBITDA 이익률(%)	11.5	4.8	12.4	1.0	-5.8
증가율(%)	61.0	-66.8	212.7	-93.7	적전
영업이익	463	71	492	-45	-277
영업이익률(%)	9.1	1.8	10.0	-1.2	-8.6
증가율(%)	85.8	-84.6	588.2	적전	적지
영업외손익	-16	121	85	-17	-12
금융수익	92	81	171	98	88
금융비용	107	87	68	119	104
기타영업외손익	-0	127	-19	4	4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2	2	1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449	194	577	-62	-289
증가율(%)	59.3	-56.8	197.3	적전	적지
법인세비용	97	94	146	80	-60
계속사업이익	352	100	431	-141	-229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352	100	431	-141	-229
당기순이익률(%)	6.9	2.5	8.8	-3.7	-7.1
증가율(%)	116.6	-71.5	330.0	적전	적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350	99	419	-58	-152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4,200	4,276	4,325	3,297	2,915
현금성자산	896	789	779	510	470
단기투자자산	248	263	605	679	676
매출채권	552	355	512	399	335
재고자산	2,298	2,671	2,247	1,534	1,288
기타유동자산	206	200	181	175	147
비유동자산	1,923	1,940	2,084	2,218	2,219
유형자산	1,413	1,342	1,333	1,380	1,402
무형자산	90	75	77	83	72
투자자산	73	168	344	518	507
기타비유동자산	347	355	330	237	238
자산총계	6,123	6,217	6,409	5,515	5,133
유동부채	2,522	2,093	1,954	1,194	1,066
단기차입금	480	393	522	327	327
매입채무	427	450	384	268	225
기타유동부채	1,615	1,250	1,048	599	514
비유동부채	809	692	632	698	688
사채	0	0	0	57	57
장기차입금	760	637	561	570	570
기타비유동부채	49	55	71	71	61
부채총계	3,331	2,786	2,586	1,892	1,755
지배주주지분	2,758	3,044	3,403	3,291	3,124
자본금	52	52	155	155	155
자본잉여금	373	592	491	487	487
자본조정 등	-39	-0	-80	-100	-10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55	-84	-56	-63	-63
이익잉여금	2,426	2,484	2,893	2,812	2,645
자본총계	2,792	3,431	3,823	3,623	3,379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81	-392	580	280	86
당기순이익	352	100	431	-141	-229
유형자산 상각비	100	99	95	73	78
무형자산 상각비	24	25	23	10	11
외환손익	10	6	3	13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460	-550	85	413	202
기타	55	-72	-57	-88	24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43	31	-535	-361	-113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570	650	685	957	11
유형자산의 감소	32	0	11	5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56	-25	-59	-110	-100
기타	-689	-594	-1,172	-1,213	-24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87	259	-68	-185	-16
차입금의 증가(감소)	296	-281	39	-204	-1
사채의증가(감소)	0	48	0	85	0
자본의 증가	0	0	-1	0	0
배당금	-11	-36	-24	-33	-15
기타	2	528	-82	-33	0
기타현금흐름	-32	-5	14	-3	3
현금의증가(감소)	193	-107	-10	-269	-40
기초현금	704	896	789	779	510
기말현금	896	789	779	510	470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7.6	48.8	8.8	N/A	N/A
P/B(배)	1.0	1.6	1.1	1.4	0.9
P/S(배)	0.5	1.2	0.8	1.2	0.9
EV/EBITDA(배)	5.2	27.3	6.4	123.9	N/A
배당수익률(%)	1.4	0.2	0.8	0.3	0.6
EPS(원)	1,125	320	1,350	-188	-490
BPS(원)	8,853	9,813	10,971	10,609	10,071
SPS(원)	16,340	12,966	15,823	12,358	10,374
DPS(원)	117	33	100	50	50
수익성(%)					
ROE	13.4	3.4	13.0	-1.7	-4.7
ROA	6.2	1.6	6.8	-2.4	-4.3
ROIC	13.6	-0.9	12.4	-1.9	-8.1
안정성(%)					
유동비율	166.5	204.3	221.3	276.1	273.3
부채비율	119.3	81.2	67.6	52.2	51.9
순차입금비율	12.0	2.5	-5.5	-4.6	-3.7
이자보상배율	13.9	2.0	15.7	-1.8	-11.9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9	0.7	0.8	0.6	0.6
매출채권회전율	9.2	8.9	11.3	8.4	8.8
재고자산회전율	2.6	1.6	2.0	2.0	2.3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제우스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7.28	제우스-반도체 수율의 해결사
2023.06.28	제우스-반도체 세정 장비에서 로봇까지 아우른다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